

함께 사는 사회

吳 壽 星
(全南大 心理學科)

'90 년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가슴 속에는 나름대로의 희망과 기대가 넘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치·경제·교육 등의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의 전공이 심리학이라서 그런지 심신장애인의 문제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며칠 전 광주 YMCA 에서 장애인 고적 답사 기행이 있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잠깐 만나 보았는데 마치 소풍을 앞둔 국민학생과 같이 맑은 표정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내가 겪었던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心身障礙人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

제작년말 대학 입시에 즈음하여 미술 전공 학과에 청각장애인이 입학 원서를 낸 적이 있었다. 마침 나 자신이 입시 관리위원이어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 학생의 자격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학생의 입학 성적이 좋다면 들어 오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회의에서 장애인의 자격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자체가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서글퍼졌다. 교육 기관 자체가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 고리를 하지 않은 채.

몇 년 전 카톨릭대에서는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을 단지 소아마비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시험에 불합격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기억이 나서 더욱 그렇다. 다른 대학도 아니고 종교적 이념을 기초로 하여 설립한 대학에서 말이다.

작년 연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분에게서 장애인 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여 준 적이 있었다. 그 분은 공장을 지으면서 공장 시설과 화장실 등을 휠체어를 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시설을 하느라 돈이 더 들었을 것이다. 평소에 그 분의 인품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그분이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하여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들도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고 취업시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기업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스럽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

문스럽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전하여 새로 짓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 성도들의 의견에 따라 휠체어를 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이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다는 교회가 과연 이런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교회, 성당,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도 보다 이러한 일에 같이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중전화기를 보자. 과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되었는가? 인도와 차도 사이의 보도블록 난간은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또한 지하철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도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편의 위주가 아니라 외형적인 전시 효과만을 노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갖게 될 소지는 다분하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장애인의 숫자도 증가되어 왔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물이나 도로 등의 시설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아이(미아)가 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가 親權을 포기한 아이들도 포함되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심신장애인이 상당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도대체 몇 만 명인데 그중에서 만 명이나 된다는 말인가? 내 주변에서는 아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버려진 아이들 중의 상당 수가 해외로 입양된다고 한다. 그것도 돈을 받고서. 해외 입양아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불명예스러운 나라.

우리가 과연 경제 중진국 내지 선진국이라고 자부만 하고 있어야 할까? 과소비의 문제만이 사회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할까?

자기 아이를 버리는 부모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자기 아이를 버린 부모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어찌면 그 사람들의 가슴은 평생 못이 박혀서 살아 갈 것이다. 아기를 길러 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만이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할까? 적어도 사회 복지 국가를 표방한다면 이런 문제의 일단은 국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부모가 안심하고 심신장애자를 위한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만 있다면 자기 아이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심신장애자를 위한 기관을 국가나 사회 복지 단체에서 운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 중에는 전문가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등으로 장애인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곳도 있다. 심지어는 신문 지상에 보도된 형제복지원과 같이 사회 복지를 빙자하여 경영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만약 이런 기관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면 부모가 자기 아이를 버리지 않고 이런 기관들에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일부는 국내에 입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되어 간다. 해외에 입양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 자신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신매매의 단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처녀나 가정주부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하여서는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만, 해외 입양의 인신매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 동료 한 사람이 해외 입양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에 갔을 때 느낀 점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본인은 항공료가 필요해서 그런 일을 자원했다고 하는데, 3명의 아이를 비행기에 태워 독일의 양부모에게 인도하

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다. 10시간 이상을 비행기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힘들었다. 이런 아이들한테 수던제 등의 약을 먹인다는 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이다. 그중에 한 아이가 상당히 말도 잘 듣고 똑똑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 양부모에게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 양부모들은 똑똑한 아이보다는 좀더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를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심신장애인을 양자로 데려가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없는 부부나 양자를 원하는 사람이 심신장애인을 데려가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나의 문제일 것이다.

經濟 우선 정책 때문에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참된 福祉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신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신장애인 회관이 설립되면 땅 값이 떨어진다고 농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들은 다만 외형적인 면이나 내면적인 면에서 어려움

을 갖고 있을 뿐이다. 어찌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더 심한 정신적 장애인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더 불행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 자신은 어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때이다.

교적 기행 여행을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관에서 그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여 결국 웃돈을 얹어 주어야 했던 현실에 정말 답답한 기분이었다. 여행을 간다는 데 들떠 환하게 웃음짓던 티없이 맑은 얼굴이 나의 뇌리에 깊은 잔상으로 자꾸 떠오른다.

이제는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나라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 복지 단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자신도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종교 단체나 사회 운동 단체에서 보다 앞장서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을 색안경 끼지 않고 바라보는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보다 성숙한 사회가 활짝 열리기를 기원한다. ■